

2021년 첫 번째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 선교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11)

할렐루야~! 메마른 가지에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고 겨우내 얼어있던 눈들이 녹아 생명의 샘을 만들어 내는 봄이 왔습니다.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오늘도 평안합니다. 모든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익숙해져버린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전달된 여러가지 규제와 방역수칙들을 지켜가며 오늘도 우리 원주민 교회는 예배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심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삶을 나누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월부터 방역당국에서 심방을 비롯한 Spiritual Visit는 허락이 된 상황이어서 방역규제들을 준수하며 사역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원주민 마을의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처럼 원주민 마을들은 다시 마을 입구를 봉쇄하고 대대적인 방역조치와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원주민들은 특히 약한 면역력과 생활환경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저희 교회와 인접한 원주민 마을들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캐나다 정부에서 정한 백신접종 우선순위로 인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원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원주민 마을에서 검역강화를 위해 교회 앞에 설치한 검문소

지난 2월 대다수의 원주민들이 백신을 맞고 각 마을들에서 집단 감염이 멈춰진 시점에 우리 원주민 교회는 봄을 맞아 대대적인 심방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후에 함께 저녁식사를 나누며 교제에도 힘썼습니다. 간간히 한국음식이 메뉴로 나올 때면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던 원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컵라면을 준비해서 나누며 우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원주민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원주민가정 심방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원주민들에게 계속 예배를 독려하고 있지만 예배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공감하고 싶어하는 원주민들의 예배를 향한 갈망은 깊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 속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주민 마을 방문 하기 전 함께 모인 원주민 교회 사역자들



원주민과 대화 후에 컵라면 전달

2월 마지막 주에는 Annual General Meeting (정기총회)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를 통해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셨던 것들과 또한 2021년 우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일들을 나누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큰 도움이시며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COVID-19의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세대를 향한 사역들이 많이 축소되고 위축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교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원주민 마을을 돌아볼 때에도 예전처럼 밖에서 어울려 뛰어노는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에 다시 한 번 아이들의 찬양과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편지에서 말씀드렸던 비전처럼 학교설립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열어 주실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동역자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해가 시작된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2021년이라는 숫자가 익숙해질만큼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속히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 늘 고맙습니다!

담임 조혁준 목사 (Joon Cho)

예배 조성은 목사 (Sam Cho)

다음세대 조성진 목사 (Joel Jo)

아동부 이선희 전도사 (Sunny Lee)

원로목사 Per & Chris Knudson

Nanaimo Native Victory Church

250)754-7866; office.nnvc@gamil.com

471 Irwin Street, Nanaimo, BC , V9R 4X9

Charity #: 107759094RR0001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 기도제목 (2021년 3월 Version)

1.교회 사역을 위해

- a. 많은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b.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나이모 원주민 마을 자체가 한동안 폐쇄되었습니다. 그 동안 마약과 금지된 약물 등의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 많은 원주민들이 중독에 고통받으며 심지어는 과다한 복용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원주민 마을에서 제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c.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조치로 인해, 원주민 성인, 청소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하는 사역들이 많이 축소되어 온라인 예배와 전화 심방 그리고 허락되어질 때 한해서만 집 앞에 방문해 안부를 묻는 수준의 사역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d. 많은 교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워져서 후원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유지와 사역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비전을 위해

- a. 밴쿠버 섬의 53개 부족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길러낼 원주민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과 동역자 (목회자, 교사, 의사, 간호사, 상담자) 등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 b. 다음세대를 길러낼 원주민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한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 학교는 계속해서 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민교회에서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세대의 원주민들을 길러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기독교학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동역자와 동역하는 교회를 위해

- a. 나나이모 원주민교회를 운영 유지하며 밴쿠버섬 복음화를 위한 비전에 재정봉사 이외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할 헌신된 동역자와 동역하는 교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 b.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를 위해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며,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지도록
- c.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진 가운데에서도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도움심과 은혜가 충만하도록